
제 18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소감 및 비전

상부 감독기관의 감찰도 기관내부의 감사도 있으나 마나

인간도 약육강식하는 다른 생명체와 똑같이 생존
과 탐욕심 때문에 속임수와 폭력을 행사하며 수십만년
살아왔다. 이러한 인간의 유전인자 속에는 이기심(제7집착
식)이 뿌리 박혀 있어서, 개인의 행복과 자유와 권리, 사회의
정의·평화·번영을 실현코자 하여도 자율적 규제(수양과 양심)
만으로는, 이익·권력의 필연적 타락·부패(Lord Acton)를
예방하기 지난하므로, 반드시 법과 원칙·감찰이라는 타율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시민들이 국법을 존중하며 사법
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주인의식과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법교육과 공정성감시운동에 나서고 있다

언론과 민주시민(NGO)들의 공정성
감시(모니터링)가 절실하다

2009년도 수상자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모범)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 수상 소감문

■ 국정감사 모범의원 수상소감

김충조 행정안전위원회(5선)

이인제 국토해양위원회(5선)

■ 국정감사 최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소감

이낙연(李洛淵) 농림수산물위원회

민주당, 전남 3선

■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 수상소감

김학송 국방위원장 한나라 경남 3선

유선호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전남 3선

■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소감

01. 국회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 한나라 부산 재선

신지호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우윤근 의원 민주당 전남 재선

전혜숙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02.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 한나라 경북 재선

주광덕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홍일표 의원 한나라 인천 초선

03.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이진복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이한구 의원 한나라 대구 3선

04.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김재경 의원 한나라 경남 재선

김효석 의원 민주당 전남 3선

박병석 의원 민주당 대전 3선

이혜훈 의원 한나라 서울 재선

0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박주선 의원 민주당 광주 재선

정의화 의원 한나라 부산 4선

06.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서종표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07.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유정현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이명수 의원 선진당 충남 초선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전남 재선

0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길 의원 민노당 경남 재선

김선동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황우여 의원 한나라 인천 4선

0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병국 의원 한나라 경기 3선

한선교 의원 한나라 경기 재선

10. 농림수산물위원회

강석호 의원 한나라 경북 초선

김영록 의원 민주당 전남 초선

김우남 의원 민주당 제주 재선

김학용 의원 한나라 경기 초선

이계진 의원 한나라 강원 재선

정해걸 의원 한나라 경북 초선

11.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최연희 의원 무소속 강원 4선

12.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민주당 충남 재선

유재중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최영희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13. 환경노동위원회

박대해 의원 한나라 부산 초선

14.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 한나라 서울 초선

박기춘 의원 민주당 경기 재선

이용섭 의원 민주당 광주 초선

정희수 의원 한나라 경북 재선

15. 여성가족위원회

김상희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박선영 의원 선진당 비례 초선

박은수 의원 민주당 비례 초선

'09국감모범의원상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 의원



21년 전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오게 된 무렵, 국회내외의 여러 모임에서 인사말에 꼭 포함시켜서 한 다짐이 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한결같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선·3선으로 이어지면서, 『초선 때의 다짐과 실천에 변질됨이 없도록 “처음처럼”의 원칙과 신념과 성실성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로 그 다짐을 스스로에게 환기시켰으며, 그에 따른 실행의 일관성을 지키기에 나름대로의 사명의식에 충실하고자 해 왔습니다.

국회 제17대의 공백기를 거쳐서 5선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지난 날 학습된 의정활동의 기본자세와 실천 의지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다는 데에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일깨워져서 작지 않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제18대 국회 초에는 「다선 의원이 ... 원로의원이 ... (너무 극성스럽게 열심이네.)」라는 투의 굴절된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았지만, 그런 때마다 위와 같은 사향을 강조해서 해명(?)하곤 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바를 수행해 왔을 뿐인데도 상이 주어지는데 대하여, 한편 감사하고 한편 어색한 쑥스러움도 감추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이번 수상이 세상에 꽤나 흔한 여러 가지 많은 상 가운데에서, 가장 곧고 맑은 기운으로 주어지는 상이라 싶어, 가슴 뭉클하는 감회로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담금질해야 하리라는 또 하나의 소명을 가다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忠 兆

'09국감모범의원상

국토해양위원회 이인제 의원



우선 제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09 국정감사 모범의원상을 수상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심혈을 기울인 의원님들이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심은 5선이라는 선수에 구애받지 말고 아니 5선의 중진답게 더욱 국민들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채찍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책무의 첫째는 대정부 견제와 감시이며, 이를 위한 많은 활동 중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활동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입니다.

주지하다시피 국정감사는 2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자칫 그 효용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도 현재의 이런 제도에 의한 국정감사에 대한 무용론에 심정적 동조를 갖고 있어 더 많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선 정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업무는 감사원의 기능 중 직무감사는 지금과 같이 대통령 직속 감사원에 두더라도, 회계감사 기능은 빠른 시일 내에 국회로 이관하여 국회의장 직속의 예산정책처와 통합을 통해 더욱 효율적인 회계감사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 국정감사 활동은 정책감사에 더욱 치중할 수 있어 국회의 기능이 더욱 생산적이고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헌법의 개정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차후 이루어질 헌법개정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제도 개선이 당장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국회법 개정을 통하여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회기 내에 20일간 이루어지는 것을 개선하여 연중 상시 국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부로 하여금 1년에 단 하루만 피해가면 된다는 만일의 안일한 사고를 탈피시키고 국민의 뜻을 하늘로 알고 집행하는 정부가 되도록 채찍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라는 소기의 목적이 존재하는 한, 모든 국회의원들은 더욱 많은 노력과 열정을 다할 것임은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감사장을 지키면서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냉정한 평가를 하여 주신 수 많은 감시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감시단을 구성하시고 일일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더 나은 국회의 기능 향상에 촛불을 켜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5선) **李 仁 濟**

'09국감최우수위원장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낙연 위원장



부끄럽게도 제가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2009년도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됐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2008년 우수 상임위원장에 이어 7년째 계속된 영광입니다. 특히 2009년에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선정됐으니, 이보다 더 한 영예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최고의 모범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 덕분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여야 의원님들은 국정감사를 알차게 하기 위해 놀랍도록 충실히 준비해 주셨고, 정쟁을 끝까지 자제해 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 의원님 모두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와 저희 위원회를 좋게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협력과 동참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만, 저 나름대로 국정감사 운영에서 시도했던 것들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를 위한 공치사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국회 발전을 위해 저의 작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나쁜 것 세 가지를 없앴습니다.

첫째, 정쟁을 없앴습니다. 정쟁이 될 만한 문제는 사전에 조정했습니다. 회의 도중에 언쟁이 생기면 즉석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해 여야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쟁점을 해소했습니다.

둘째, 돌발적인 정회를 없앴습니다. 정쟁을 없애고 우발적인 언쟁을 그 자리에서 해소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휴식을 위해 예고해 둔 정회 이외에 돌발적인 정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지각개의를 없앴습니다. 2분 이상 늦게 개의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오시지 않았더라도 개의를정족수만 되면 무조건 개의하는 것을 관례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것 세 가지를 높였습니다.

첫째,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오전회의 벽두에는 몇 명의 의원이 오전에 질의할 것인지를 예고했습니다. 오후회의 벽두에는 몇 시쯤에 휴식할지를 예고했습니다. 최대한 예고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원님들과 정부가 준비하기 쉽게 해드렸습니다.

둘째, 균형성을 높였습니다. 의원들의 발언이나 증인 참고인의 진술이 한 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쪽 발언을 유도함으로써 균형을 잡았습니다. 의원님의 질의는 길었는데 피감기관의 답변이 짧았다면, 피감기관 측에 답변시간을 더 드렸습니다.

셋째,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질의 답변 전체를 놓고 볼 때, 뭔가 빠뜨렸다면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앞의 답변과 뒤의 답변이 다르면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의원님들은 자기 질의에 몰두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전체를 보기 어렵습니다. 위원장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정감사에 적절한 긴장이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너무 긴장되면 긴장을 풀도록 배려했습니다. 반대로 긴장이 너무 이완되면 긴장감을 높이도록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유머와 짤막한 언급을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입니다. 정부로서는 고통스럽겠지만, 국회나 의원으로서의 가장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최고로 국회답고 의원다운 일입니다. 국정감사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국정감사NGO모니터단’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洛 淵

'09국감우수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위원장



전국 270개 시민 사회단체가 연대하여 온·오프라인에서 1천 3백명이 모니터링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으로부터 우수상임위원장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9년 법사위 국감에서는 그 어느 해보다 의원들의 열정이 가득한 국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사건, 효성그룹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측면도 있었으나, 법사위활동 2년차를 맞이하여 국정운영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대안제시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원들의 열성적인 태도는 조두순 사건의 법적용 오류 및 양형기준의 국민 법감정 불일치 등 사정, 사법운영의 문제점을 확인시켰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철저한 추궁으로 사실상의 재수사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위원장이 느낀 것은 무엇보다도 법사위원들의 성숙한 국감태도였습니다.

법사위 국감은 그 대상기관이 검찰, 법무부, 대법원등 주로 권력기관이나 사법 최고 기관들로 매년 언론의 뜨거운 조명을 받았고 각 당의 정파적 이해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잦은 마찰과 파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나 이에 대처하는 의원들의 태도는 한 단계 성숙해졌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통해 정작 중요한 질의기회를 상실하는 것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판단으로 의사진행발언을 자제하고 질의에 집중한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아울러 여당의원들도 정부 감싸기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점을 야당의원 못지않게 비판하고, 야당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을 경우 공동 입장을 견지한 것은 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것으로 매우 높게 평가할 만한 것입니다.

2009년은 사정기관인 검찰이나 사법기관인 법원 모두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수사중 서거하는 비극적 상황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검찰총장이 물러났으며, 새롭게 임명된 총장이 스폰서 검사라는 오명으로 퇴진하는 등 검찰로서는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또한 법원도 신영철 대법관의 쫓불재판 개입으로 대법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재판개입이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는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한 해였습니다.

따라서 법사위는 국회 파행의 와중에도 개최되는 등 일년 내내 상임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감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는 등 아직도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남은 정기국회 회기에서도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상임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야 합의에 의한 상임위 운영이라는 민주적 의사운영의 원칙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의 우수상임위원장 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시민단체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柳 宣 浩

'09국감우수위원장

국방위원회 김학송 위원장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 먼저 2009년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장상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시상이지만, 올해는 2년 임기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국정감사이기에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 중 하나가 참여입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각자의 생업에 전념하시다보면 공동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제대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 등 여러 매체가 발달함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공동체의 결정에 반영하는 방법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나라 살림과 국가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회 활동입니다. 또한 의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기도 합니다. 이 국정감사 과정을 살펴보면 행정부가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 입법부가 국민으로 받은 권한을 제대로 활용해 이를 감시, 견제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은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매우 긴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을 통해 행정부의 잘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어떤 정책적 이슈가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논의되어야 하는지가 밝혀지며, 어떤 선량(選良)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치꾼에 불과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날 저는 7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또 앞으로 이 상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고민하다보니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연마하는 것이 일상화되었고, 그 결과 큰 과오 없이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면을 빌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회와 달리 우리 국방위원회는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정착되어, 정치적 쟁점에 근거한 파행 없이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각종 비리나 장병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주문하였습니다. 전력 보강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지적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대체적인 방향을 잡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조국 방위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더욱 알차게 사용되도록 하고, 많은 정책적 변화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작지만 큰 기여를 한 것 같아 마음 뿌듯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방위원회는 국가방위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적극 나서서 지원하는 한편, 국민의 혈세가 단 십 원이라도 낭비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우리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각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비롯한 많은 시민단체들이 적절한 감시와 균형 잡힌 평가를 통해 국방위원들이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셔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의민주주의의 파수꾼으로서, 올바른 정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예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 김대인 단장님을 비롯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鶴 松

'09국감우수의원

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 국회의원 김정훈입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공정한 평가를 통하여 선정하셨기에 보다 뜻 깊은 수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해 저는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라는 중책을 맡아 지식경제위원회, 정보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피감기관에 대해 오직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시 국정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2009년도 우수 국회의원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국정 전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수국회의원 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도 국정감사 기간 동안 불철주야 수고하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과 모니터링·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正薰

'09국감우수의원

운영위원회 신지호 의원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마땅히 수행했을 뿐인데, ‘2009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충실한 의정활동과 내실있는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과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막중한 책무이므로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국감에 이어 올해도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와 각종 탈·불법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냈고 정부의 각성과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선관위 노조의 민노총 가입결정으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의 심각성을 집중 부각했고, 이를 통해 발견된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법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노조의 탈·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 및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전담조직 인력을 확충하도록 하였고, 또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밀착형의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정책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국정감사기간 동안 제가 속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선배·동료의원님들 모두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였고, 오늘 받는 ‘우수의원상’은 이러한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수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주시는 우수의원상은 더욱 성실히 의정생활에 임하라는 채찍이라 생각하며, 끝으로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님과 소속단체 관계자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申 志 鎬

'09국감우수의원

운영위원회 우윤근 의원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단체로부터의 수상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에 대해 10년 이상의 국정감사 모니터 경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려 1천 3백여명이 넘는 모니터단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정감사를 평가하였다.

평가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양적인 평가와 더불어 질적인 평가의 기준까지도 제시함으로써 그 평가에 있어서 신뢰를 받고 있다. 모니터위원들은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이 적시된 평가표에 의하여 기록하는 것을 볼 때 평가가 결코 녹록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시상을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다는 것이 매우 기쁜 일이고 영광스럽기도 하다. 평가가 엄격하기 때문에 더욱더 뜻깊게 받아들이는 것도 사실이다.

□ 더욱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

어떻게 보면 평가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11년이란 긴 기간 동안 평가가 지속되어 오면서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자세와 국정감사의 내용은 매우 많이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에서도 계속하여 개선되고 발전해간다는 평가만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수상할 때마다 다음에는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된다. 평가를 의식한 것도 있겠지만 그 평가의 기준이 결국 바람직한 국정감사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모니터단에서는 국정감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다.

□ 모니터단의 평가와 국민의 평가

모니터단의 평가 결과가 국민의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기간동안 국민들은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재확인하게 되고, 정부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제 기능을 다해야만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게된다. 이러한 매개역할을 하는 단체가 바로 모니터단이라고 생각한다. 모니터단의 평가는 국민이 국회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있는 정보와 도구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모니터단의 평가를 보고 국회의원 각자를 평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니터단의 평가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11년간의 끊임없이 이어온 평가를 고려하고, 그 평가에 따라 국정감사가 해마다 개선되어온 것을 생각한다면 그 평가는 계속될 필요가 있으며, 그 평가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禹潤根

'09국감우수의원

운영위원회 전해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해숙 의원입니다.

두 번째 맞는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굉장히 기쁘고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저보다 훨씬 뛰어난 활약을 펼치신 의원님들이 많았지만 다소 부족한 저에게 이런 의미 깊은 상을 주신 것은 국민의 건강과 복지의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을을 즈음하여 신종플루가 크게 확산되어 많은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걱정스러웠던 것은 우리나라의 미비한 공공의료체계로, 신종플루의 관리나 확산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역거점병원에서조차 신종플루 확진장비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확진이 늦어져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습니다. 이에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저소득층의 의료접근성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복지부의 임의적인 근로능력판단 기준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시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올해의 국정감사 활동들은 국민을 위한, 특히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정책 위주의, 일명 ‘생활밀착형 국감’ 이었다는 면에서 더욱 국민들과 시민단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지출에서 급증하고 있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 증상의 개선을 위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보나 유의사항 등의 대국민홍보를 강화하게 한 것도 생활밀착형 국감 중 하나입니다.

큰 정책이나 제도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그 근본에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국민을 위한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음을 구체화시키고, 정책화시켜나간 것이 이번 국감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으로 제가 뽑히게 된 주요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의 국감 우수의원 선정에 감사드리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국민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全 惠 淑

'09국감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장윤석 의원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엄정한 평가를 통해 수여되는 ’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을 부족한 제가 올해도 수상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여·야의 정파에 매몰되지 않고 행정부처나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범죄사건인 ‘조두순 사건’이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재발 방지와 처벌의 강화를 요구하였으며, 국정감사 이후에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내에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 올바른 한글 문장 사용을 강조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판결문에 상당 수의 ‘비속어?일본식 표현’, ‘틀린 맞춤법?외래어 표현’ 등이 있음을 발견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같이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판결문 쓰기’ (알판) 운동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 것이 개인적으로 뜻 깊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낙태의 심각성을 밝히고 적극적인 계도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고, 많은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이 스스로 낙태수술 근절을 선언하고 나서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였던 재판관의 정년 퇴직 등으로 인한 재판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판관 임기 만료 또는 정년 퇴직 30일 전에 미리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저의 보잘 것 없는 의정활동을 평가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달라는 무거운 명령으로 알고 기쁜 마음으로 이 상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張 倫 碩

'09국감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주광덕입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과 모니터위원, 평가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5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은 ‘일하지 않고 정쟁만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하여 정책감사를 준비해왔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률정비 등에 중점을 두면서 감시와 비판 못지않게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두순 사건과 같은 아동성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녹화제도 개선, 주취감경 등 잘못된 양형기준 개선을 촉구하였고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형집행정지 처분이 남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엄정히 관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여, 국정감사 후 영상녹화제도 및 양형기준의 개선이 추진되고 있고 ‘형집행정지심사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며 최근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국민들의 법감정과 눈높이’를 의정활동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여러 가지 엄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부족하지만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들의 격려로 알고 앞으로도 국민들의 뜻을 받들고 책임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朱 光 德

'09국감우수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



이번 2009 국감에서 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정밀하고 공정한 국정감사 평가와 이에 따른 우수의원을 선정, 발표함으로써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과 국정감사활동을 이끌어 내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일 동안 이루어지는 국정감사는 짧은 시간적 한계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있으나, 국정전반을 돌아보고, 정리해보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이 더 많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3권분립 정신에 따라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로서는 가장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속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 법무부, 검찰, 법원, 감사원, 법제처 등 사법 관련 국가기관의 업무를 감사했습니다. 이들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통상 권력의 남용방지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주로 논의되었으나, 올해에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성폭력범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내느냐는 문제가 초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법관들의 성폭력범에 대한 양형기준의 재설정과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절차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전국 법원에 성폭력전담재판부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는 바로 이번 국감의 성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귀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우수의원상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경제위기 속에서 민생을 살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 한층 성숙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김대인 상임공동단장님을 비롯한 공동단장님들과 그 소속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발전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洪 日 杓

'09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권택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서울 광진갑 출신 국회의원 권택기입니다.

우선 이렇게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은 국정감사 기간 내내 국회의원을 능가하는 날카로운 시각으로 지난 11년동안 의원들의 국감활동을 꼼꼼하게 평가해 온 단체입니다. 때문에 초선 의원으로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의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 2009년도 국정감사는 4대강 등 국가현안 관련 여야 갈등과 10월 재보궐선거 등으로 내실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서민국감, 생활국감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여러 가지 사회 갈등을 겪어왔고, 국민전체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여러 악조건에 시달리며 희망이 사라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번 국감을 통해 서민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과 입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에서도 이런 연유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쪼록 사회통합과 서민생활안정을 목표로 했던 이번 2009년도 국정감사가 서민 여러분의 생활고 해소와 한국사회 갈등 해결을 통한 국민대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서민여러분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국정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 국회의원’ 으로 선정된 데 감사를 드리며, 오랜 기간 평가를 위해 시간과 열정을 쏟아주신 1,300여명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권택기

'09국감우수의원

운영위원회 김정훈 의원



먼저 국정감사장 현장과 화상, 인터넷을 통해 20여 일 간 국정감사 현장의 의정활동을 모니터 해온 모니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정과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고 국감에 임하여 국민과 국가를 위한 많은 활동이 있었음에도 이런 영광이 저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의정활동의 중심을 서민과 우리사회의 상대적 약자를 위한 정책과 지원에 중점을 두어왔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는 낮은 곳을 보고 늘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것이 저의 정치적 소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와 의정활동도 그러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문제, 중소기업의 보증부대출 금리 인하 문제 등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으로 보는 그런 국회의원의 자세로 상대적 약자를 위한 배려, 그들을 위한 정부정책의 허와 실을 가려내서 좀 더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나서면 정부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세상도 변한다.’라는 법률소비자연맹의 홈페이지에 있는 문구처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11년의 노력의 결과라고 보아집니다.

끝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있는 국정감사, 국민의 마음이 전해지는 국정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모든 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珍 福

'09국감우수의원

정무위원회 이한구 의원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이명박정부가 지난 10년간의 좌과정권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음에 있어 미흡했던 점, 집권과 함께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경제활성화와 국가선진화, 그리고 각종 정책들을 실천하는데 있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애정어린 충고와 보완요구에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계와 기업, 공기업 등 대부분 분야에 걸쳐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점, 감세를 했음에도 국민 부담이 늘고 있는 점 등 현 정부의 재정포퓰리즘에 대해 질책하면서 재정 관리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고,

또한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혁신도시 등 대형프로젝트는 국가재정 사정을 고려해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다시한번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소금융 정책의 부실 등 관치금융·관치경제 행태가 부활·강화될 우려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도덕적해이 문제를 집중 추궁하였습니다.

향후 국정감사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 국감의 도입과 국감의 사후검증제도 실시’ 등의 근본적인 제도 변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국회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여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보탬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漢 久

'09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 의원



조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국민의 소리에 더욱 귀기울이고 의정활동을 올바르게 할 것을 스스로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올 한해 국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고, 특히 중소기업과 중산·서민층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상황 속에서 재정·경제정책을 소관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국정감사에 임해 정부 경제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책을 제시하고, 이번 국정 성공을 바라기 위해 생산적인 비판을 하고 민심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지난 5월부터 다섯 분의 경제전문가들과 토론을 시작했고, 그 분들의 소중한 수고 덕분에 한국경제 현안에 대한 다섯 권의 정책 연구시리즈 ‘한국경제의 새 틀을 찾아서 : 위기를 넘어 체질강화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 자료집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 주소와 문제 의식을 경제체질개선, 미국발 경제 위기로 인한 우리 내부의 문제 성찰, 출구전략, 질적 성장과 사회통합으로 경제의 새 틀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조선으로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정감사를 하면서 아직은 부족함을 느끼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경제에 대한 고민들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 분들께서 인정하고 격려해 주셔서 큰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과 정책제언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경제가 건전한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成 植

'09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재경 의원



— 여의도의 가을을 보내며 —

3주간의 기간 동안 국정감사를 모니터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부부처에서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국민이 지켜본다는 긴장감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듯이 국회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으로 보다 내실 있는 국정감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매진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여의도에 가을은 없다’는 말을 종종 들곤 합니다.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을 동안 국회에서 근무하는 모든 이들이 가을의 정취를 느낄 여유가 없다는 뜻에서 짐작되듯이 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주말은 물론 여름 휴가조차 반납한 채, 가족보다 국민을 먼저 섬기고, 가정보다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국정감사기간 내내 정정보다 정책을 먼저 생각하고 정당보다 국익을 우선시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위원회에 소속된 선배·동료 의원들 모두가 국정감사 우수의원이었고 단지 이들을 대신하여 제가 상을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상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되새겨 국정감사 중 문제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되고 있는지 정부정책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국민들의 삶이 보다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로 거듭 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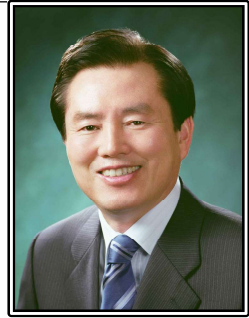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在 庚

'09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김효석 의원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10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다짐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눈높이를 함께 하며, 국민의 바람을 담아서, 정치권 보다는 국민여러분께 좋은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다짐을 갖고 목표로 삼았던 것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일과 가장 아쉬운 일이 바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과 연관돼 있습니다.

매년 의정활동의 대미(大尾)를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으로 장식하는 것은 저에게 더할 나위없는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없는 영광이기에 지난 2007년 국정감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한 것이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초반 대통합민주신당과 통합민주당의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도 개인국감에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판단에 따라 국정감사를 사실상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었기에 지난해 이후 최선을 다했고, 이 같은 자세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3선의원이 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고 얘기하지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의정활동이 오래될수록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초심(初心)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여러분의 불편함과 어려움, 억울함을 살피 이를 치유하고 국정에 반영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과정이며 이 소신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의 소감과 함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에 대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우리를 평가해 주셨다면 ‘NGO 모니터단’ 의 지난 11년 활동 또한 국민여러분들로부터 새롭게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년 사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는 물론 피감기관의 태도,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국민여러분의 시각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국민여러분으로부터 칭찬을 받기엔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난 11년 동안 국정감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 온 것은 바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이뤄낸 또 하나의 결실은 지난 11년 동안 꾸준한 활동을 통해 국정감사는 물론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자료와 기법을 축적하고 발전시켜 왔다는 것입니다.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온·오프라인에서 1천3백여 명이 모니터하는 한편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각 상임위 질문내용을 전문적으로 검토, 객관적 평가를 내리는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소중한 사회적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상의 기회를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그리고 국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국민여러분과 눈높이를 함께하며 국민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孝錫

'09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박병석 의원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박병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16대 정무위원회 위원시절 4년연속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었고, 17대 우수 상임위원장, 08년 국감우수의원에게 이어 올 09년에도 국감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모두 7번째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금융위기 이후 경제 지표는 좋아지고 있으나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대책, 전세대란 대책 등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 정책을 중심으로 문제점 뿐만 아니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 국민의 입장에서 비판하는 것 그리고 국민이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내유일의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270여개 시민·사회·소비자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11년 전통의 공신력 있는 모니터단입니다. 그러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받는 상이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모니터한다는 책임감으로 맡은 바 책무를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성실하게 수행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朴 炳 錫**

'09국감우수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혜훈 의원



— 나무를 키우고 숲을 가꾸는 마음으로 —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1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이 종합평가하는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무척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점과 아쉬움이 많았던 제 개인적인 소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국 내·외적으로 힘든 경제상황 속에서 펼쳐진 올해 국정감사는 무엇보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최우선의 척도로 삼아 정부정책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조언과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정책국감’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항상 그 자리에서 국민여러분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주셨던 ‘국감NGO모니터단’의 열정이 더해져 2009년도 국정감사는 더욱 빛나고 성숙된 감사가 이루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따사로운 봄 어느 날 어린 묘목을 심고 모진 땀별과 가뭄을 이겨내도록 물을 주고 보살피어 울창한 숲을 만들어가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국회를 진정한 ‘민의를 전당’으로 거듭 발전시켜 국민여러분들께 편안한 그늘과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기간내내 감사위원들과 함께 호흡하며 해가 갈수록 성숙된 자세로 국정감사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 넣어주고 계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건승을 기원하며 따뜻한 격려의 인사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惠 薰**

'09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구상찬 의원



먼저 2009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70여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1천 3백여명의 모니터위원과 전문 평가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본 의원은 ‘지역구민과 국민을 생각하면 일분일초도 쉬이 여길 수 없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형, 실무형 정책국감활동을 펼쳤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외교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내역, 환차손익 문제, 국군포로·납북자·탈북자 문제, 남북간의 합의서 이행률 분석, 재외 공관 신종플루 관련 공지, 재외국민 피·가해 현황, 한미 미사일협정, 한미 원자력협정 등 현안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책국감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중국 현지인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한류가 경제, 정치, 외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자료집을 발간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정보, 중국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한국에 대한 조사분석을 한 것입니다. 외교부에서 대중국 외교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본 의원의 자료집이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더욱 의미있는 조사분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인정받게 되어 더할 나위없이 기쁘고 보람을 느낍니다. 이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깨어있고, 더욱 더 노력하는 국민의 참 일꾼이 되겠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具 相 燦

'09국감우수의원

외교통일통상위원회 박주선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소감에 앞서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국정감사의 안테나를 세우고 불철주야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고 표창이라고 하나, 정작 상을 받는 저로서는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이 상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정감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꼼꼼히 각 의원실의 보도자료와 질의자료를 챙기고, 질의 장면을 모니터하고, 국정감사 현장의 분위기까지 세심하게 반영해 시상식을 마련하느라 애쓰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받아야 할 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은 제가 받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열정적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모니터 해주신 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와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270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 모니터단의 예리하고 빈틈없는 감시는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의회발전의 자양분이 될 것을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오늘 수상의 의미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주마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정진하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신장과 국가이익의 보호를 위해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박 주 선

'09국감우수의원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의화 의원



270여개 단체의 연대기구로, 진보와 보수단체가 함께 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속된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미국 의회로 치다면 상원격에 해당하는 상임위입니다. 각 당의 대표와 다선 중진의원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할까요, 타 상임위에 비해 치열함이 덜 한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선의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초선의원 못지않게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또 국무위원들의 답변을 일일이 메모하면서 질의를 준비하는 모습을 평가단에서 높이 평가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국감 중 국민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잊지 않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 중심의 정책국감을 지향한 점을 후하게 봐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수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 초선시절 4년 연속 국정감사 베스트 의원에 뽑혔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밤늦은 시간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자마자 국회에 돌아와 보좌진들과 컵라면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야전침대에서 새우잠을 자며 다음날 감사를 준비했던 치열한 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당시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했음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저를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것은 초심을 잊지 말고 더욱 국가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라는 격려로 받아들입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4선의 선수(選手)에 걸맞은 큰 정치로 땅에 떨어진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되찾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힘써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과 현장 모니터 위원께도 수고했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鄭 義 和

'09국감우수의원

국방위원회 김영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포천·연천의 김영우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지난해 초선의원으로서 설레임을 안고 첫 국정감사를 치른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일정이 급하게 결정되어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 국정감사를 교훈삼아 미리 준비를 해두어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총 3주에 걸쳐 진행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 소관기관의 국정감사는 아쉬움을 남기고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올해 국정감사도 지난해에 이어 민생국감·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국방 정책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보호를 위한 국방규제개혁, 방치된 군사시설과 군 유휴지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안보와 경제의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군 관계자들과 함께 현지 조사를 하면서 군인들과 주민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군의 개인 사유지 무단점유와 강제 지상권설정 등의 문제점을 찾아내기도 하였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많은 문제점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우리 군 스스로가 ‘국방 뉴딜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 국감 때 제시했던 대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감 때 다 하지 못했던 것은 계속 자료를 제출받아 국감 이후라도 문제가 있다면 지적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국감 때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국감을 한다는 자세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내년 예산안과 관련 법률안만 처리하면 올해 정기국회도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과 끝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대신해서 올바른 국정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이번 국감 경험을 되살려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榮 宇

'09국감우수의원

국방위원회 서종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종표 의원입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70여개 NGO(시민사회단체)들로 공동 구성된 평가단으로 국정감사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실시해 우수 국회의원 등을 선정·발표해오고 있는 제일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특히, 또 규모 큰 단체들과 모니터교육을 받은 700여명의 대학생을 포함 1천3백여명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전문NGO활동가와 교수,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를 위해 전국에 산재한 각 지역의 피감기관을 감사위원들과 함께 방문하며 고생을 해 오신 모니터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처럼 권위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시상하는 국정감사 우수위원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더 없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09년 국정감사 기간에 군 사령관 출신으로 야전경험과 국방위 예·결산심사 소위위원, 법률안 심사 소위위원으로써의 풍부한 정책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일회성의 폭로, 감정적 질의를 지양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09년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6월부터 전 피감기관별로 주요 업무 집행 현황 및 예산 활용 현황에 대한 대면보고를 직접 시행해오면서 각 군, 각 작전제대별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안을 파악했습니다.

이러한 보고 결과를 근거로, 저는 국방부의 법률위반 사항 및 군 구조적인 시스템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군 장성 출신으로 군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직업군인들의 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노력을 가상히 여겨주시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국민들의 격려와 바람으로 알고 신념을 다해 의정에 활동에 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드립니다.

시민단체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대 정부 국정감사활동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 및 평가하는 행위들은 국회의 품격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파수꾼 역할을 맡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徐 鍾 杓

'09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



저에게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여러 상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상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이나 언론이 아닌 객관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의 대표로부터 받는 상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주신 상이기에 몸을 더욱 낮추고 결코 자만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첫 발을 내딛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받드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

끝으로 저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고생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裕 貞

'09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중랑갑 유정현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국정감사 시작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모니터하며 수고하신 모니터단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보면 늘 부족함을 느끼는 제게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정밀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더 많이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격려의 큰 의미를 늘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또한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을 계기로 그 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고, 평상시에도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행정부를 감시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가 여의도 의원회관에 자리를 잡은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국회일정 가운데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두 번째 준비하고 실시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모두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따뜻한 관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희망’이 되고 그 ‘희망’이 모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이런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 여러분들께 믿음을 심어주며, 희망을 비출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柳 政 鉉

'09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선진당 충남 아산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우수 국회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중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에게 2009년은 잠시도 쉴 틈 없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국회 일정과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여러가지 아쉬움과 상념들이 지나갑니다.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반목, 그리고 4대강 사업 논란, 시도 통합으로 인한 사회갈등, 세종시 수정론 등의 국가적 중대한 현안과 문제 등 초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안이 있다 보니 2009년 국정감사는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해주시는 국민들과 아산지역민들이 계셨기에 제 소신을 펼칠 수 있었고, 국회의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인 ‘2009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9년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몇 가지 다짐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서류만 검토하는 형식상 국회의원이 아닌 항상 공부하고 참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단순히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질책에 머물지 않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질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종결된 이후부터 『연중 국회 상시국정감사』라는 원칙 하에 2008년 12월부터 소방방재청을 시작으로 연중 집중감사(주요시책별, 정책별, 사업별 감사 및 대면보고 매월 정기개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과 실천은 제18대 국회가 개원초기부터 여·야간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민생국회’, ‘민의대변’, ‘민심전달’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뼈저린 반성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국내외의 상황을 국회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전 국민적인 비판과 불신을 미력하나마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책임감에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현행 국정감사제도가 3주 내외의 기간으로 종결해 버리는 상황에서는 소관부처에 대한 제대로 된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일부 부정적인 실태를 개선하는데 일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국정감사 동안에 이러한 저의 다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다듬고 보완해서 내년 2010년 국정감사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을 ‘민생국회’, ‘민심국회’로 거듭나서 국회가 명실공히 국회다운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라는 채찍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의원 상 수상은 충청민과 아산시민들의 성원과 관심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긴 시간 동안 전 국정감사장을 함께 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국회의원 이명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明 洙

'09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의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단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의 헌신적인 성원과 지지, 그리고 민주당의 체계적인 국감 준비가 오늘의 성과를 이끈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년 임하는 국정감사에 두 가지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준비합니다. 하나는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정책에 법적·제도적 결함은 없는지, 예산낭비 및 예산낭용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과 실현가능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이 점을 높이 평가해 부족한 저에게 6년이나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국회의원의 활동상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자세 및 출석률 제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 등은 270개 NGO가 연합해서 모니터하고 꼼꼼히 점검한 성과물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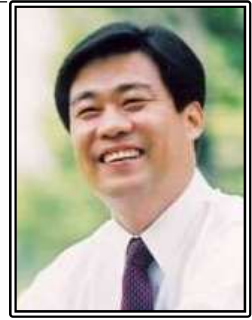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습니다. 6년 연속 우수의원상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이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崔 仁 基**

'09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



반갑습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선동 의원입니다. 수상소감에 앞서, 이 지면을 빌어 이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점 국민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들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 국정감사를 돌이켜보면, 저와 저희 의원실은 교육정책들의 근원적인 문제들과 교육의 당사자들이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교급식 우수 기자재 조달방안, 학생들의 트랜스지방 섭취 감소방안, 방과 후 학교 급식을 통한 결식아동 방지방안, 초중등 학교의 학습 준비물 지원방안, 학업 중단학생들을 어떻게 학교로 불러 올 것인가 하는 문제, 운영비가 충분하지 않은 학교 도서관 실태와 교육청 지원 필요성 등 남들이 흔히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챙겨보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제게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보좌진과 함께 회의를 해가며 준비했던 국정감사 자료가 정쟁으로 인해 한 순간에 쓸모없게 되어 버리는 일이 허다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러 선배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심과 포용력을 진심으로 요청하였지만, 결국, 고민했던 수없이 많은 부분들은 '교과위 국감 파행'이라는 단어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쫓어지고 가야할 학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상한선 제안,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에 매몰 되어 정작 우리 국사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 대한 정부의 방관, 정부의 교육정책 근간을 흔드는 서울대학교의 공교육 무력화 입시안에 대한 시정요구 등 주요교육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대해 아무런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감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남아있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던 부분들이 현장에서 잘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는지를 지켜보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대학생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의 애로사항을 없애서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도교육청을 계속해서 독려하며 최선을 다해 도와가겠습니다. 다시금,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로 새겨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善 東

'09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창원을 지역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입니다.

2009년 올해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저 권영길에게 주신 것에 대해 국민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무엇보다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발생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교육목적사업비인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이 특목고와 일반계고, 전문계고 등에 편중지원되는 실태를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학부모부담 교육비와 전체 공교육비도 특목고와 일반계고 등 학교급별로 편중지원되고 있는 사실을 통계분석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교육재정 확충이 절실하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이 빗더미에 오를 것이라는 자료도 분석, 공개했습니다. 교육현장의 비정규직 실태, 특히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불법채용 실태와 학교 비정규 행정직원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교육약자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자료도 분석해 공개했고, 특수교육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수능성적을 분석해 소득과 자산이 높을수록, 평준화지역일수록, 특목고·자사고 학교가 있는 지역일수록 수능성적이 높다는 사실을 통계분석해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초중등교육의 최종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수능에서도, 부유층 자녀의 성적이 높았던 겁니다. 저 권영길은 하지만 학교별 순위, 지역별 순위 공개 등 학교와 교육을 서열화하고 교육현장을 왜곡할 수 있는 단순 순위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의 사기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과학기술인 인식 조사를 통해 현 정부의 과학기술 홀대,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정규직 증가 실태 등의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서울대 국고 편중지원에 따른 지방국립대 차별, 카이스트와 일부 사립대학의 펀드 투자 손실액 등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날에는 교육재정 편중지원, 교육격차 확대 등 각 주제를 묶은 정책자료집인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전국의 교육 불평등 실태를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언론과 동료 교과위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저 권영길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더 땀 흘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국민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주마가편(走馬加鞭)’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2009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권 영吉

'09국감우수의원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황우여 의원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오늘 큰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0월5일부터 20일간 실시한 2009년도 국정감사는 저에게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분야 전반에 걸친 우리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고 나름대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여본 아주 뜻 깊은 기간이었습니다.

18대 들어 두 번 째 실시된 국정감사를 통해 저는 국감기간동안 제기하려는 문제제기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대안은 있는 것인지, 정부의 각 각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으며 잘 된 이유와 잘 못된 이유는 각각 무엇인지를 꼼꼼히 집어보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살과 학교폭력, 성폭력의 실태와 이를 예방하고 관리할 전문상담사의 현황과 특히 유아교육실태를 교육청을 돌며 알아보았습니다.

현안인 실업문제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박사 등 고학력실업자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으며 비정규직문제와 직업교육실태를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사교육의 효과와 각종 정책들이 사교육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를 점검하였고 이를 위해 교육 격차 완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의 개선과 불법과외행위의 단속의 강화, 공교육으로 제공 가능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필요를 억제시킬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제는 일본의 AO입시를 예로 들어 보다 신중하고 안정적인 접근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입학사정관의 신분상의 문제, 보수의 문제, 경력 등의 문제를 분석하여 입학사정관이 안정적으로 소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의 지역균형선발 전형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의해 선발된 학생들의 성적이 일반전형 출신들보다 높은 것은 입학사정관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였는데 서울대학교는 28일 지역균형선발모집을 군단위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하여 우리에게 작은 보람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습니다.

학교 전기로문제와 등록금문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었고 그밖에 시간강사문제, 신종플루문제 등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고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과학분야에서도 현안들을 두루 챙겨보았습니다. 그러나 과학분야, 특히 우주분야는 비밀문서가 너무 많아 접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보위처럼 정보접근권이 있는 의원에게만이라도 일정한 기밀을 공개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국감이 되도록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잦은 파행과 의사진행발언의 난무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공과를 효과적으로 점검하진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도 그러하겠지만 교과위는 특히 이론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되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한데 이는 의원들과 장관 등 기관장 간의 생생한 질의를 통해 보여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내년 국감에는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끝으로 이번 국감을 위해 고군분투하신 여러분과 특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단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뜨거운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黃祐呂

'09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 의원



전통과 공정성으로 명망이 높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으로부터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18대 국회, 특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여야 대립과 정쟁의 상징과 같은 상임위로 인식되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작년보다 훨씬 많은 정책질의가 쏟아져 나왔고 행정부를 비판, 감시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일부나마 회복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와 방송통신은 21세기에 부각되고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우리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이 달려 있는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열풍을 일으켰고 한국 출신 스포츠인들이 세계무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글은 해외 소수민족의 언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IT와 무선통신 인프라는 명실공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말 한국의 문화와 한국인이 세계 속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화의 이면에는 아직도 어두운 모습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장서량은 OECD 최하위권입니다. 급격한 인터넷의 발달은 저작권 침해와 사이버범죄, 다수의 언어폭력을 초래했습니다. 체육계에서는 아직도 감독, 코치, 선수간 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수지는 환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립니다. 방송인들의 비속어 사용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은 아직도 문화와 체육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바로잡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회의 기능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는 만큼 국가의 미래와 서민의 삶은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욱 겸허하게 민생과 서민을 꼼꼼히 챙기는 의정활동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먼 앞날과 가장 낮은 곳을 바라보며 국회의원의 본분을 항상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의 기쁨과 영광을 금천구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安 亨 奭**

'09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위원회 정병국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를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상임공동단장인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0년 국회의원이 된 후 지금까지 아홉 번째로 이 상을 받지만, 늘 처음받는 상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전국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여 발족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국회의원상은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그 때문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등상을 받고 부모님께 자랑했던 것처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상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감사는 의정활동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늘 초심을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하며 모든 힘을 쏟아 부었지만, 국정감사가 끝나면 왠지 부족했다는 마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텐데하는 아쉬움이 제일 먼저 다가서곤 합니다. 그 허전한 마음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이 채워주는 것 같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2000년 초선의원 시절부터 10년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문가적 시각을 최대한 살려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9년 국정감사를 준비를 하면서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는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일회성 지적이 아닌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를 이끌어 내는 생산적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공방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국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도를 잘 따라준 보좌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번 수상의 영예를 차지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늘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해주는 보좌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수상이 앞으로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 열심히 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가졌던 국민의 심부름꾼, 봉사자가 되겠다는 초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鄭 柄 國

'09국감우수의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교입니다.

우선 영예로운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하여 주신 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수상으로 2006년부터 4년 연속 상을 받게 되지만 매년 상을 받을 때마다 항상 두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이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저로 인해 여러분이 행복해 질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제일먼저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국정감사에서 저는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생활국감’을 가장 우선시 두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피해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메신저 피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휴대폰 로밍요금이 2G에서 3G로 이동하면서 요금은 3배 이상 비싸졌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사행성 온라인게임으로 인한 가정파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행성 온라인게임의 사이버머니 상한제 도입 등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관광공사의 다문화가정코디네이터 활성화 문제, 예술의 전당의 장애인 관람객수 1% 미만, KTV 시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방송 ‘0시간’, 국립장애인도서관 예산 배정 문제 등 다문화가정 및 장애인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정부를 질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독도와 동해 표기 오류를 지적만 하고 시정률은 24.3%밖에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노력을 촉구하였습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하고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통해 국정의 효율적 운영을 이끌어내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국감현장에는 과거의 관행 이었던 증인채택에 대한 여·야간의 공방으로 파행되고 고성이가 오가는 점, 사라지지 않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의사방해발언 등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행정부를 감시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은 법적·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민을 행복하게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일일이 상임위 전체를 모니터하느라 수고하신 1천여 명의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韓 善 敎**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강석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석호 의원입니다.

제18대 처음으로 열린 지난해 국회는 초선으로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두 번째를 맞이한 이번 국정감사에서 영예로운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큰 기쁨이 앞섭니다.

먼저, 국정감사 기간동안 감사장을 떠나지 않고 모니터해주신 1, 300여명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들과 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올 국정감사도 가을의 정취도 느끼기 전에 지나갔습니다.

보람과 성취, 그리고 아쉬움은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고3 학생들의 심정과도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좌관들에게 내년 국정감사에 조금 더 분발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하라는 국민의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는 국민을 대변하여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이 되도록 이끌어 내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현장을 방문하여 농어민들과 대화를 나누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방향을 찾은 것이 국정감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행정부의 자료 제출 기피와 불성실한 태도, 사후검증 미비 등 개선해야할 부분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서 진정한 의회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즈음 정책과 대안이 아닌 물리적 정쟁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만 “국민에게 사랑받는 방법”을 우리 국회가 품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국정감사 기간동안 지방 국정감사까지 상세히 모니터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김대인 상임단장을 비롯한 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姜 碩 鎬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김영록 의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이 되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을 먼저 저의 지역구인 해남·진도·완도 지역구민들에게 돌립니다.

국감우수의원 수상은 앞으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 더욱 열심히 봉사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하며 국가경제 발전과 모두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정감사는 1988년에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對행정부 통제체도로 작동되고 있으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주요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본 의원은 국정감사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과 예산에 적극 반영하는데 국정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국감준비와 질의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농어촌의 현실은 어렵다 못해 절박합니다.

국가적인 관심을 쏟지 않으면 FTA의 높은 파고와 격랑에 우리 농어업이 쓸려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쌀, 비료, 농약, 저수지 독농임사업의 문제점과 수산분야의 당면한 현안들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고 정책자료집 ‘저탄소 녹색성장 수산업 정책방향’을 발간하여 2013년 포스트교토체제이후 한국수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의원님들의 성실한 국정감사가 그동안 국정감사의 비효율성을 지적해온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불식되었다는 것입니다.

방대한 자료와 의원들의 질의를 일일이 모니터하며 수상자를 선정한 27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런 노고가 앞으로 국정감사를 더욱 충실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瑛 錄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우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乙 국회의원 김우남입니다.

우선 부족한 제가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이 뽑은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을 느낍니다.

이번 2009년 국정감사는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 속에 우리 국회가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산적인 곳이 아니라 정쟁만이 가득한 곳이라는 국민의 우려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여야의 불필요한 정쟁 없이 ‘민생 중심의 정책 국감’을 실현해 냈으며, 또한 저는 1차 산업 부분, 특히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고통 받고, 4대강 사업 등 현실과 동떨어진 농정으로 일관하는 정부에게 소외 받고 있는 농림 어업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오늘의 수상으로 이어진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낍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냉철한 판단과 치열한 노력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정치인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어민의 고통을 뜨거운 가슴으로 이해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는 ‘차가운 머리’를 지닌 정치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관심과 애정에 대해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더욱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상의 영광을 제주도민 여러분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宇 南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김학용 의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2009년도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간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수고해 주신 모니터단께도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분발하라는 뜻으로 받아 드리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국정감사가 일회성 이벤트가 되지 않도록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식품 안전’과 ‘식품산업 육성’을 테마로 하여 국정감사에서 제가 지적한 주요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올해 초 EU에서 위해성 등을 이유로 등록 폐지한 농약성분 697종 가운데 155종이 국내에서 여전히 농약제조에 사용되고 있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둘째 흑삼, 싸라기 쌀, 중국산 찐살 등이 품질 및 안정성 기준도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점과 중금속이 검출되는 폐광지역 농산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점을 밝혔으며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과 제도 개선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셋째 국산 갯벌천일염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작년까지 45년간 광물로 분류된 채 식품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추후 천일염 포럼 결성, 세미나 개최, 발전방안 제시 등을 통해 보석 같은 천일염이 세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힌 문제점들 이외에도 먹거리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식품안전행정체계 효율화 문제,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식품산업 활성화 문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문제, 다문화 가정 지원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농림어업인과 서민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의정활동을 중점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여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날의 제가 있을 수 있도록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아버님 영전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의 영광을 바칩니다. 고맙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學容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이계진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뽑은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현재 어려움에 처한 농어촌의 아픔을 농어민들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한 결과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국정감사를 통해 본 위원이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여 농어민의 아픔을 이해하고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농식품위 간사로서 항상 농어민을 먼저 생각하고 농어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대원칙 하에 FTA 체결문제, 쌀값문제, 식품안전문제, 농어가부채해결 등 산적한 농어업 현안을 여야가 합심하여 해결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季 振**

'09국감우수의원

농림수산물위원회 정해걸 의원



먼저 11년 전통에 빛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감사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국감을 마치고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국감기간 20일을 재차 돌아보니, 참으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을 온전히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이 아쉽기만 합니다.

길지 않은 시간동안 농림수산물위원회에 속한 9개 기관과 산하단체의 업무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하는 쪽도, 감사를 받는 쪽도 모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국정감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국정감사지만,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압박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은 해를 거듭 할수록 그 무게가 더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리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국민여러분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신뢰를 쌓아가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 기쁜 마음가짐으로 임했습니다.

세상을 나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돈과 명예, 기술 따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하루를 국정감사 받는 기분으로 살아간다면,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 며칠 지나지 않아 포기해 버릴 것만 같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자기 자신을 단련해 나간다면 어느새 우리 삶의 방식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향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국정감사가 다소 소홀하게 여겨지는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물론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 먼저 좀 더 열심히, 그리고 진지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시간이나, 피감 기관의 협조 문제, 좀 더 전문적인 국정감사가 되기 위해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문제, 국정감사를 뒷받침하는 인적자원을 보강하는 문제 등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국감이 정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막아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대상으로, 국익과 민생을 위해 제대로 된 국정감사를 하지 않으면,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이제 '불신'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험한 '무관심'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한 '정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필요한 것이 국민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국민의 '비판'이기 때문입니다. '무관심' 속에서는 따끔한 '비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을 위한' 정치도 기대하기 어려워집니다. '욕심'을 부려서라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정치'를 바른 길로 안내하기 위한 '정치인'과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가을 낙엽이 언제 떨어졌는지도 모르는 바쁜 국회의 모습이 국민의 관심을 조금이라도 불러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2009년 국정감사는 끝이 났지만, 오늘부터 ‘2010년 국정감사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丁 海 杰

'09국감우수의원

지식경제위원회 이종혁 의원



저에게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맞은 국정감사는 지난해와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수상이 또 다른 의미로 기분 좋은 부담감으로 작용하기도 했지만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역할에 충실하고 국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올바른 정책국감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들어 두 번째 진행된 국정감사를 통해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이 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국가 프로젝트인 경주 방폐장 건설의 부실, 졸속 건설계획의 문제점을 밝혀내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막대한 예산이 계획 없이 낭비 되어질 수 있었던 사안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휴, 폐 금속광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주변 환경에 대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광산 인근의 주민 건강까지 해치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여 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조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보상 및 대응책 마련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으며, 전기용품 안전인증기관의 부실운영이 심각하여 국민 생활에 적잖은 피해를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여 지식경제부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인증기관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지역의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심지내 철도시설로 인해 부산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부산 철도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문가, 주민, 지역기관 등을 포함해서 30%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많은 행정부와 공공기관 및 공기업들의 방만 운영 실태와 예산낭비를 지적하여 국민의 혈세가 오용되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였으며 올바른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국정감사 현장을 통해 기관장들에게 직접적인 정책제시를 하는 것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NEW IT 산업, 고령친화산업, 저탄소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산업, 식품산업, 바이오기술 정보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관한 5가지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국가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국정감사가 1년에 한 번씩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는 이름뿐인 국정감사가 아니라 행정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며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실생활을 나아지게 하는 올바른 ‘정책국감’을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날을 새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였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경주로, 부산으로, 강원도로 문제가 있는 현장마다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눈으로 확인하고 귀를 기울이고 공부를 하였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과 해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또다시 머리를 맞대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국회의원으로써 성실함과 노력, 그리고 공부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감사기간 동안 100%의 출석률을 기록하였으며, 감기와 고열로 인해 몸이 안 좋은 상황임에도 이석 또한 최대한 자제하고 동료의원들의 질의와 기관장들의 답변을 귀 기울여 답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보충질의와 추가질의, 종합감사 등에 모두 반영하여 질 높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 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것은 아마도 저의 이러한 노력을 조금은 알아주신 것 같고 또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선정을 통해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도록 다짐하며 더욱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鍾 赫

'09국감우수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의원



저를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처럼 명예로운 수상을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은 제가 의정활동에 입문한 이래 여덟 번째로 받게 되는 영광입니다. 국정감사를 제대로 치러 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의 덕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늘 의정활동의 기본이라고 생각해온 현장정치와 실천정치의 소신이 인정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더욱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많은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현장을 직접 챙기고 부지런하게 대안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회의원의 시간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지역민들과 국가의 것이기에 이러한 원칙을 보다 많은 분들이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이 지속될 때 국회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라는 안타까운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보다 생산적인 국회의 모습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된 여러 의원님들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하면서, 저 역시 오늘 의 수상을 계기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무한한 발전과 관계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崔 鉛 熙**

'09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민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입니다.

우선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저의 의정활동을 높이 평가해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수고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모니터위원과 평가위원님들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2009국정감사에서 노인의치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소아암환자 의료비 전액 국고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대상 확대 등을 이슈로 선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이 즉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데 앞장서고, 우리 사회가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1년간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으로 인해 국회의 국정감사 기능이 보다 충실해지고 국정감사의 품격이 매우 높아졌다고들 합니다. 다시 한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의정활동의 조력자·감시자가 되어, 보다 나은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梁 承 晁**

'09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유재중입니다.

먼저 11년 전통의 ‘국감NGO모니터단’ 으로부터 이런 훌륭한 상을 받게 되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항상 NGO 여러분들이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져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항상 관심과 열렬한 성원을 보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무엇보다 감사드리며, 지난 2개월간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해준 보좌진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20일간의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으로 2009년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더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였고, 또한 나름의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이번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신종플루 사태’ 라 국가적 위기 상황과 국민적 분노를 불러온 ‘조두순 사건’, 그리고 경제불황으로 인한 차상위계층의 지원정책점검 등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종플루 예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예방접종백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고, 아동들에게 위험성이 검증되지 않은 면역증강제 사용백신의 문제와 기형아 출산이 우려되는 치메로살 함유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결과, 이 성분이 함유된 백신에 대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들과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금지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음주로 인한 우리 사회의 피해규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국감이 끝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가짐으로써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데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술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집행하는 예산 14억은 금연사업 31억에 비하면 과소 책정된 금액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국정감사장에서 상세히 지적 하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현재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운용문제에 관해 짚어보았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올해 성과보수를 220억원을 지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 복지부의 성과보수체계 지침 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소중한 자금임으로 앞으로도 허술함이 없도록 정책들을 챙겨 나갈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 3번과 수영구청장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부에 알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국회 국정감사의 건전한 비판과 국민들을 위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계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모든 분들의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柳 在 仲

'09국감우수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



먼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그간 부족했던 의정활동을 반성하고 국정감사기간 동안 논의되었던 여러 대안들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해가라는 국민여러분의 격려이자 질책으로 알고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18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의 허구성과 각종 현안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을 짚어내고 권력형 비리로 촉발된 각종 국민적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나아감과 동시에 국민 생활에 밀착한 ‘국민 공감형 이슈’와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이전 국감보다 발전된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중간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의 요구자료 제출거부 및 지연, 불성실한 답변 등 점차 도를 더 해가고 있는 국회와 국민 무시의 구태와 한정된 시간, 소모적인 정쟁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한 ‘B학점’ 수준의 국정감사였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이 필요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정감사를 통해 얻은 소중한 경험들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평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앞으로 어려운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며, 국민의 삶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1년을 한결같이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국정감사를 모니터링하시느라 고생하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계속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2009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뜻깊은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여러분과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많은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崔 英 姬**

'09국감우수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박대해 의원



— ‘소나기’ 국감 폐지하고, 상시 국감체제로 바꾸자 —

올해로 두 번째 국정감사(이하 국감으로 표기)를 치렀다. 개인적으로 처음이었던 지난해 국감을 철저히 분석·보완해 올해는 제대로 국감을 치러 보겠다고 버티던 참이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올 국감도 작년보다 나은 게 없는 것 같아 민망하다.

긴 시간을 준비해 국감장에 들어섰지만 질의서 보따리를 채 풀어 보지도 못한 경우가 많았다. 국감이 政爭(정쟁)의 도구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정책국감’이 아니라 ‘정치국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매년 지적받는 얘기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래 국감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해지는 양상이다. 도대체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질의시간이 부족하다. 의원들의 질의시간은 상임위별 소속 위원 수에 반비례한다. 문방위나 국토위처럼 위원 수가 많은 상임위는 한 의원당 질의시간이 7~10분 정도다. TV 생중계가 있으면 질의시간은 5분 안팎으로 더 줄어든다. 의원들은 5분 내에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답변까지 들어야 한다.

시민단체가 제시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센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질의시간 5분 내에 질문, 답변, 대안제시까지 다 끝마쳐야 하니 의원들은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반대로 이런 시간적 제약을 받기는 쪽도 있다. 바로 피감기관이다. 의원들의 핵심적인 질문을 지연시키기 위해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장황하게 설명하는 식이다. 의원과 피감기관 간에 高聲(고성)이 오가면 심중팔구 이 때문이다.

受監(수감)기관이 너무 많은 것도 비효율성을 높인다. 지금처럼 16개(특위 제외) 상임위가 478개의 피감기관을 20일 동안 감사하는 방식으로는 수박 겉핥기식 국감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아무리 의지를 불태워도 내실 있는 국감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원들도 잘 안다. 필자가 소속된 환경노동위는 이번 국감에서 45개 기관을 감사했다. 자료 정리하는 날과 주말을 제외하면 실제 국감 일수는 고작 13일이다. 피감기관 45개의 지난 1년치 성과와 잘못을 단 13일 동안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현행 국감체제의 한계

이런 국감제도도 수감을 준비하는 정부에도 부작용을 일으킨다. 부실한 자료제출과 의원실 앞 줄서기가 대표적이다. 국감 때면 의원들은 보통 300~400건의 자료제출을 피감기관에 요구한다. 상임위별로 의원 20여 명이 그 정도 분량을 요구하니 단순 계산만으로도 기관당 6000~8000건의 자료를 준비하는 셈이다. 자료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달랑 A4 한 장 분량으로 내용을 축약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피감기관은 핵심 자료를 누락시키기 위해 고의로 그러기도 한다. 때문에 ‘쓸 만한’ 자료 한 건을 받아내기 위해 같은 자료를 수차례 보완 요구할 때가 많다. 이것도 인내심이 있을 때의 얘기다.

국감의 비효율성은 의원실 앞 줄서기에서 극에 달한다. 피감기관의 국회 담당자가 의원실 앞에 줄을 서는 이유는 국감 질의서를 미리 받아내기 위해서다. 기관들은 이에 대해 “의원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핑계다.

자신들이 모시는 기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당황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 줄을 서는 진짜 이유다. 기관장이 기관의 모든 업무를 알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그건 도리 없는 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억대의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훤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

질의서를 미리 받아내려는 또 다른 이유는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실제 기관장들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내부 자료나 수치들을 제시하며 반박, 일단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한다.

나중에 확인해 보면 我田引水(아전인수)로 자료를 해석하거나 억지주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의원들에게 주어진 질의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이 아니면 담당 공무원과 보좌진들끼리 서로 양해하는 선에서 지직한 문제를 ‘호지부지’ 끝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사이 국감을 지켜보던 기자들도 자연스레게 취재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피감기관으로선 일단 위기를 넘기는 게 상책이다. 때문에 국감 전에 피감기관에 먼저 질의서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그럴싸한 이유를 대도 질의서를 피감기관에 미리

주는 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거나 감사위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먼 의원들의 질의 시간을 늘리거나 국감 기간을 40일로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고쳐야

가장 좋은 방법은 現行(현행) 국감체도를 폐지하고 常時(상시) 국감체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질의시간 부족과 과다한 수감기관은 필연적으로 부실 감사로 이어진다. 수감기관의 부실한 자료제출과 의원실 앞 줄서기는 국정감사의 취지를 훼손하고 감사권한을 침해한다.

때문에 1년에 20일 정도만 감사하는 현행 ‘소나기’ 국감을 1년 내내 필요 시 언제든지 상임위별로 실시할 수 있는 상시 국감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처럼 상임위별로 청문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또 국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감 전, 피감기관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

특히 감사원의 국회 이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 정부 시절에 감사원은 싹쓸이금 감사결과를 청와대의 외압으로 덮어 두고 있다가 뒤늦게 공개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감사원이 국회 소속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국회 이관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의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다. 때문에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기됐다. 국회 이관으로 감사원의 중립성 논란을 해결한 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올 초 ‘국회 운영제도 개선자문위’는 국감 문제의 해법으로 ‘상시 국감’을 제시했다. 이번 회기 중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관련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기회에 국회의장은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국감체도를 바꿔주길 바란다.

올해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다.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되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롭고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이것만 고쳐진다면 국민의 관심과 신뢰를 받는 국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박 대 해

'09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저를 2009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감이 진행되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15개 전 상임위를 엄정하게 모니터링했다고 들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벌써 11년째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격려하는 상중에 가장 받고 싶었던 상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미흡한 제가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국정감사의 기초를 “민생국감”으로 잡았습니다. 18대 국회 회기 중 두 번째 국정감사가 서민의 생활을 보살피고 살림살이를 걱정하는 자리가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 아파트 매입정책의 부실운영을 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비싼 음식값을 따져 묻고, 단돈 만원이 없어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하며 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유통된 수 십 만장에 달하는 철도 운임할인권 제도를 지적하여 철도공사로부터 할인권제도의 폐지를 약속받았습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기록 유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로공사로부터 개선방안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올해 국정감사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듣지 못했습니다. 4대강과 세종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이 국정감사 기간 내내 감사의 화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방송과 현행 국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인터뷰를 하며 올해에는 달라진 국정감사를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피력했지만 저 역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이 착잡하기만 합니다.

언론도 국정감사 관련취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의원실이 열심히 준비한 정책기사보다 자극적 비리기사와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 세종시 건설 문제가 보도의 최우선에 놓여져 있음은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입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민생과 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국감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일간의 감사기간동안 각고의 노력과 열정으로 국정전반을 감사했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국정감사가 정치적 이벤트가 되는 것을 반대합니다. 화려한 미사어구도 사양합니다. 국민들의 실생활이 달라질 수 있는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제도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국정감사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생을 위하는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제도의 변화를 의회 내에서 다시 모색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의 상시국감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사안은 국정조사로 철저하게 따지고, 국정감사는 국민의 시각으로 국민의 편에서 정부의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9년 국정감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지만 민생본위 김성태의 국정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 한분의 국민이라도 불편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년 356일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聖 泰

'09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박대해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위원회 박기춘의원입니다.

270여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하는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2009년도 국정감사 전반에 관한 내용을 종합모니터하고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는 오늘, 제가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시상식에 함께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렇게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270여 시민사회단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사회단체가 정치권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와 신뢰’를 전달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은 더욱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국회의원으로써 많은 역할이 있지만 국정을 감시하는 역할은 그 어느 것보다 더욱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저는 국토해양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중 하나인 4대강사업에만 몰두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 편법으로 예산을 떠넘기고, 4대강의 홍수피해를 과장하여 발표하는 등, 4대강사업의 문제점을 구체적 지적하는 것과 함께, 소외된 계층에 대한 균형적인 배분의 문제 등 자칫 현 정부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구석구석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배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수상이 저에게 지금까지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사명을 다하라는 유권자의 격려로 생각하고,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께 보답하겠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신이 팽배한 현 상황속에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며, 희망을 비출 수 있는 작은 촛불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박 起 春

'09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의원



2000년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국정감사가 성실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시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뜻 깊은 상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선한 정부도 견제 받지 않으면 부패하고, 감시하지 않으면 권력을 남용합니다. 국회가 매년 4천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을 쓰면서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은 정부를 견제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으로써 말은바 책무를 다한다는 사명감에서 국정감사에 열심히 임한 것뿐인데 이렇게 영광스런 상을 받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국회의원이 되어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친 지금 많은 아쉬움과 좌절감을 느낍니다.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에 주로 의존하는 국정감사의 특성상 주무부처가 자료은폐, 허위 제출, 지연 제출을 하면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습니다. ‘1년 중 하루만 버티면 된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행정부가 하는 것도 상당부분 국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에서 각종 자료를 DB로 구축해 사후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감사의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진실인지, 국감에서 지적된 개선요구를 반영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부실한 자료제출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때가 되면 감당할 수조차 없는 자료 요구 때문에 공무원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문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감사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 제18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회가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민생국감에 임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여당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중산서민을 위한 정책 입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말로 수상소감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李 庸 燮**

'09국감우수의원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 의원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상을 주신데 대해 진심어린 감사를 드리며, 국민의 대표로서 제 몫을 다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합니다.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진실로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소속 위원회의 현안과 피감기관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때론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정감사에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저로 하여금 스스로 국민의 대표임을 깨닫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으로 우수국회의원상 수상에 보답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더불어, 국정감사 기간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신 모니터단 자원봉사자 여러분, 김대인 상임공동단장 및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향후에도 시민사회의 성숙과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鄭 熙 秀

'09국감우수의원

여성위원회 김상희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여성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선배 ·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270여 시민 · 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11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의해 ‘2009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감기간동안 서울에서 제주까지 15개 상임위원회 국감현장과 통신 등 온 · 오프라인에서 열심히 활동하신 1천 3백여명의 모니터위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 및 평가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환노위와 여성위는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서민, 노동자, 실업자, 여성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부 사업들이 유독 많습니다. 때문에 현안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데, 한정된 시간과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노위와 여성위에서 4대강 사업과 아동성폭행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임위 선배 · 동료의원들과 공동질의서 작성 등을 통해 ‘수박 겉 핥기식’ 감사가 아닌, 새로운 국감 모델을 제시한 것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것이 지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자로서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라는 격려와 지지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金 相 姬

'09국감우수의원

여성위원회 박선영 의원



자유선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선영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수상소식에
놀라움과 계면적은 마음이 앞섭니다.

제가 과연 국민의 대표로서 후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 했는지, 생각해 보면, 스스로 아
쉬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는 것보다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물론, 겸임상임
위원회여서 다른 상임위원회에 가려지기 쉬운 여성위원회를 맡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자 노력하며 동분서주하기는 했지만,

시간 상의 제약도 있었고, 정부가 자료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앞으로 더 많이 살펴
보고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상이 앞으로 이 땅의 소외받고 그늘진 곳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더 애쓰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알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의정활동 중에 민의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국회의
원이 되겠습니다.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朴 宣 映**

'09국감우수의원

여성위원회 박은수 의원



법률소비자연맹, 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 한국부인회 등 270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이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대변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공직자와 비슷한 용어로 예전에는 ‘목민관(牧民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이 목민관의 역할을 중하게 여겨, 18년에 달하는 유배기간 동안 행정제도와 정치 개혁, 농민 생활향상 등을 위해 밤낮없이 연구해 목민관에 해당하는 벼슬아치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담은 ‘목민심서’를 써내신 바 있습니다.

저는 지금 법률소비자연맹이 총괄주관하고 있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역할이 바로 현대의 목민심서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의참석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부터, 각 소관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 여부와 질의의 방향성까지 폭넓고 꼼꼼하게 판단하는 모니터단의 역할이 있어 비로소 국정감사는 민의를 반영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여의 장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 여성위원회의 피감기관은 여성부로, 예산이나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의 권익 증진과 더불어 차별과 성폭력으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입니다.

현재 위축된 여성부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앞으로 여성위원회의 주된 목표인 만큼, 이번에 주신 큰 상은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1월 27일

국회의원 **朴 殷 秀**